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9>



사고 있지 않나요

장마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옆집에선 성가신 일이 생겼다. 어디에선가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들어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나고 옷, 이불 등이 젖고 말았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마다 모든 문과 창을 열고, 옷이나 이불 등을 햇볕에 말리고 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보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가을에 집을 완성하고 이주하였기 때문에 장마비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작년 지붕을 만들 때 제대로 치밀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조그마한 틈이나 구멍일지라도 빗물은 지나치지 않는다. 반드시 틈 사이로 혹은 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집을 지을 때 지붕이 새지 않도록 잘 지어야 한다. 지붕에 구멍이 없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는 집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젖고 나서 틈이 발견되면 재빨리 찾아 보수해야 한다. 그냥 방치해두면 틈은 점점 커져 피해도 커지고 보수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마음이라는 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언제든 번뇌의 빗물이 스며들어올 것이다. 마음에 난

답하였다. “여기서 30여 대를 살았으며, 농사와 목축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또 물었다. “무엇을 받들어 닦아 생사(生死)를 여의려 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해·달·물·불을 섬기면서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죽을 경우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모여 범천(梵天)에 태어나기를 기원해 외치며 그로써 생사를 여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바라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또는 해, 달, 물, 불에 제사지내거나 또는 외치거나 해서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생사를 떠나 영원히 사는 법이 아니다. 아무리해도 28천(天)을 벗어나지 못하니, 그것은 도(道)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윤회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오직 지을 때나 청정한 뜻을 두고 고요한 이치를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70명의 바라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서는 그 비구들과 함께 정사로 돌아오시던 도중에 그들이 처자를 연모하여 각기 후퇴할 뜻이 있음을 아셨다. 게다가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바라문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길가에 있는 집

마음에 틈 생기면 번뇌의 빗물 스며들어 욕망의 대상 나타날때 빨리 단속해야

틈을 메꾸지 않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번뇌가 더 많이 들어와 마음을 그 만큼 더 더럽힐 것이다. 1분 동안 틈을 방치해 두면 1분만큼의 번뇌의 비가 고일 것이고 1시간 동안 방치해 두면 1시간 만큼 비가 내리고 축적될 것이다. 방치해 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은 더 더럽혀져 있어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거나 청소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비가 새는 집을 방치해 두면 결국 그 집에서 살 수 없게되어 버려야한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스며드는 것을 막지 않으면 마음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수시로 집을 살펴보고 보수해야 하듯이 때때로 마음을 살펴 번뇌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할 때 더욱더 지붕을 살펴 보아야 하듯이 욕망의 대상이 나타날 때 마음을 더욱더 단속해야 한다. <법구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옛날 기사굴산 뒤에 바라문의 집 70여 채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은 거룩한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보고 모두 공경하고 복종하였다. 부처님께서서는 나무 밑에 앉아 법지들에게 물으셨다. “이 산 속에서 몇 대(代)나 살았으며 어떤 직업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가?” 그들은 대

안에 들어가 비를 피하였다. 그 때 지붕이 풀어져 비가 새었다. 부처님께서서는 그 지붕의 새는 것을 계기로 다음 계승을 물으셨다. “지붕을 좀 훑히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듯이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생각이 계승을 깨뜨리리라. 지붕을 좀 훑히 잘 이으면 /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 마음을 단속해 오듯이 행하면 /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바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에 빠져버릴 것이다. 일단 감각적 쾌락에 밟을 경여놓게 되면 이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셔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만약 싫은 대상을 만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서, 남을 해치고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한 행위는 바로 마음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마음이 슬 위한 것처럼 혼미해져서 갖가지 나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마음에는 더러운 때만 쌓여 나가는 것이 되어 악취 풍기는 구렁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능가 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말은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도 모두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키기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뿐이니 어떻게 하면 자기를 찾게 해주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셔서 자기를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되찾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자등명 범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몸은 인연이 지어낸 ‘가짜’

또 <법구경>에는 자기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지만 남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기는커녕 남을 스승으로 삼는 것도 꺼리는 세상입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린 그런 세상이란 말이지요.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린 사람은 부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스승으로 삼아야 부처님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부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귀의하고 그 여타의 것에 귀의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몸은 만물의 중심이고 내 마음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척도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만물을 재는 자’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은 일본입니다. 그러면 동쪽 구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동쪽을 한번 가보자며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일본에 가서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미국으로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또 물으면 동쪽은 영국이니 영국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가서 동쪽을 물으니 ‘한국으로 가보시오’ 하는 겁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동쪽을 물으면 또 일본이라고 합



능가 스님은 7월 14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고승초청법회에서 ‘내 마음과 부처님 법을 스승으로 삼아 껌데기 삶 버리고 참나로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쪽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은 본래 없어요. 시간과 공간도 원래 없는데, 여러 사람이 살다보니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해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하자’고 공동체약을 한 것입니다. 그 계약이 몇 천만년이 흐르는 사이, 동쪽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돼 버린 겁니다. 그러

참나 있고 껌데기 인생 살아

나 처분해 생각해보면 동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동쪽입니다. 이처럼 삼라만상의 중심은 전부 나입니다. 높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는 것이요, 멀어놓고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작다거나 크다거나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다. 크다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큰 것, 작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나라는 것이 무시돼 버렸 습니다. 그러나 ‘무시된 나를 되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참나, 참뜻, 진면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은 참나를 잊어버리고 껌데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도 껌데기, 남도 껌데기 아니 부처님 믿는 것도 껌데기입니다. 내가 여태껏 부처님 믿는다고 젊에 다녔는데 껌데기라니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나인데 그 나라고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문수 도량 오대산 첫차를 전세기로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출발일: 1차 9월 11일-14일(3박 4일) 2차 9월 14일-17일(3박 4일)
3차 9월 17일-20일(3박 4일) 4차 9월 20일-23일(3박 4일)
※선착순 각 35명 인원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 천 대 동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량 후 전용차량으로 태원 출발 대동 도량, 석식 및 호텔투숙	제 3일	오대산	문수보살성지 오대산의 현종사, 보살정, 불사리굴 모신 법원사, 최대 문수보살을 모신 수상사(법회), 대아정(케이볼라), 용원사동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제 2일	대 동 오대산	중국 불교 3대 석굴중 하나로 5만여 불상들을 세간 운강석굴 신라 황룡사 9층탑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거대한 용원탑 등 순례후 오대산 도량 석식 및 호텔 투숙	제 4일	오대산 태 원 인 천	오대산 출발 태원 도량 후 공항으로 이동, 전세기 편으로 태원 출발 인천행 동량 후 태원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9월 1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명)을 넘어 우무루치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택실라-페사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지(세계 최 장수 마을)-키슈카르-쿠차(천불동)-우무루치
- 부탄 왕국 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 430만원 (인솔차 동행)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왕국 부탄 - 팀푸 축제 참관 및 불교성지를 순례합니다.
●일 정 : 인천-부탄의 파로-팀푸(팀푸축제참관)-통사-왕디포르당-푸니카-파로-인천
- 티벳, 내팔 일주 11일 (출발일: 9월 2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정체-시기체-라체-시기(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영)-정무-카트만두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상부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개 지장 전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계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귀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사지니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자유로 - 일산 오우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일산 전원 포교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법화경 읽고 불법과 인연...시대상 꿰뚫는 비판의식 빛나

능가 스님은 능가 스님은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을 인솔해 법어사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그 길로 범어사에 주저앉았다. 사표도 우편으로 접수하고 동산 스님의 제자가 된 스님은 지금까지 불교정화운동, 한국불교 세계화 등의 중심에서 역할을 발휘해 왔다.

1923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충북의 대지주 집안의 종손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인사동 고서점에서 읽게 된 <법화경>과의 인연으로 불교 세계가 화두가 되어 버렸고, 195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불국사·범어사 주지, 세계불교지도자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일제시대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구, 경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스님은 출가 후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차례 권유받자 그때마다 지리산으로 도망치곤 했다. 껌대기와 망상뿐인 세상사를 뒤로 한 스님이지만 능가 스님의 세상사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82세의 세수에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시대상을 꿰뚫어보는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스님의 법문은 후학들의 바른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다.

평생을 <법화경>과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화경>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중시하는 스님은 최근에는 소박한 한 토굴에 집거하며 정진 중이다.

하는 것은 가져 나옵니다.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 태어났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저 인연의 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아(因緣我)'라는 말입니다. 인연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연으로 지어지는 것은 전부 가져옵니다. 인연을 속 빼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거짓 나로 사는 것은 기초가 가져나 모든 것이 가져다 이 말입니다. 정치를 해도 가져오, 학문을 해도 가져오, 억척만 가지의 일이 모두 가져옵니다. 왜? 일을 하는 주체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 깨우칠때 진리 보여

인연따라 보고 듣고 맛보고, 인연 따라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인연 아닌 나가 인연에 좌지우지 되는 나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연은 물거품과 같아서 인연이 사라지면 인연에 의한 나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가짜 나'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중생은 사대를 내 몸이라고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수화풍 인연 따라 형성된 몸을 내 몸이라고 우기고 색성향미촉법으로 인해 듣고 보고 맛보는 것이 인연 따라 형성되었을 뿐인데, 그렇게 생겨난 선입견을 내 마음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잡재의식에 그런 선입견이 꼭 쳐 있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인연 따라 뚫어내오면 그것이 내 마음인줄 착각합니다. 몸만 가짜가 아니라 마음도 가짜로 형성된 것입니다. 가짜 아닌 것은 인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나, 이게 진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 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진짜 나를 채득하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부처님게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짜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나가 부처님입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하면 절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절에서 밥 먹고, 절에서 자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모시는 것, 이것이 스님의 3대 강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한국 신도들은 전부 눈이 흰 사람만 모였다고 말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을 분간을 못해요. 3대 강령을 잘 지키기도 않는 스님을 큰스님이라고 부르고, 스님들의 쫓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한국불교의 실상입니다. 물론 어저대 불일을 보다 보면 부득이 절에



능가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발심의 계기를 다지는 불자들이.

서 못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사흘이 멀다하고 절에서 나가서 자고 예불을 빠뜨린다면 무언가 탈이 있는 겁니다. 신도는 삼보를 의호하고 불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신도의 의무인데, 그렇게 잘 못돼 가는 스님들을 큰스님이라고 떠받든다면 그것 역시 잘못되는 길입니다.

출가인으로서 진짜배기이나 아니냐 3대 강령이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4대 원칙을 말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범어사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유교 신자들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불교와 유교가 다른 점이 뭐니까 하고 물으면 그만 입을 다물고 마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절에 다니는 신도라고 하면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무엇에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느냐? 업, 인연, 잡재의식 등에 톱공 묶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묶여있는 게 중생입니다. 그것에서 탈출하면 정정심 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번째로 삼보 긍정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부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신도의 첫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면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가자만 알고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이러쿵 저러쿵 허거나 이 절 저 절 왔다 갔다 하는 절 도깨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야

<열반경>에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잘 새겨서 절에 다니는 마음가짐은 법에 의지하라는 철칙을 지키며 4대 원칙을 완성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어버린 나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현상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있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가서는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 문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영석 스님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울타리를 쳐 놓고서 그 곳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은 꼭 우물 크기만큼이다. 더 넓고 활기에 찬 다른 세상이 있음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본인이 만든 울타리안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 곳을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한다. 그리고 또 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하거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바다. 그 변화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된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기 위한 변화를 요구

모두들 기본을 찾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바로 영석 스님이 기본이 아주 충실히 갖춰진 스님이었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도 저 정도 되니 까 많은 스님들이 닦아두어 천거를 했나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포교원에서는 인건을 처리해야 할 때 원장스님을 모시고, 차·과장까지 함께 회의를 한다. 그럴 때마다 영석 스님의 자세는 다소곳함과 함께 상대방이 편하게 느끼는 얇은 미소로 일관한다. 스님의 자세만 보고도 어른스님들이 "영석 스님은 어른을 많이 모셔 봤지요?"라고 할 정도다. 영석 스님은 요란을 떨지 않으면서 자기계발을 끊임없는 시간을 투자한다.

출가해서 은사스님 시봉하고 몇 번씩 시험을 봐야만 합격한다는 운문사 강원을 졸업한 뒤에도 동국대에 진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진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교법사를 겸하면서 불교대학 강의로 하고 법회도



그림·문병성

해야 하며, 자기 자신도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스님이 영석 스님이다. 영석 스님은 포교원 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맡기로 내정이 되었다. 그래서 포교원장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면접도 겸해서 포교원의 칸막이된 회의실에서 원장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즈음에는 신도국장과 공석이어서 사무국장과 신도국장장을 어느 스님이 맡느냐로 의견이 분분하던 때였다.

나는 영석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회의실에서 원장스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비구니 스님들은 한번 자리에 앉으면 오로지 왜 그 자리만 지키려고 하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꺼내기가 무섭게 회의실에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새로 맡게 될 스님처럼 보였다.

아름사! 웬지 개뿔처럼했다. 나중에 원장스님께 여쭙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천거한 실력은 스님이라고 하였다. 면접이 끝난 뒤 영석 스님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아재 든 영석 스님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다. 그런데 보통의 사무국장이 아니었다. 요즈음

매사 사려깊고 따듯 뒤편 말으면 쉽게 '척척'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포교에도 열심이다. 정말 눈코 뜰새 없을 만큼 바쁜 사람 가운데 하나다. 포교원에서도 책상자리에 앉았다 하면 불 일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을 만큼 집중력과 성실로 통쳐진 수행자다. 크게 웃지도 않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옆에 있어보면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영석 스님은 세속의 언니도 출가를 했는데, 같은 은사스님을 모신 수행사제지간이다. 영석 스님이 먼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동생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갈 요량으로 언니가 절을 찾아가셨다가 오히려 동생에게 설득당해서 정말 출가를 하게 되었다. 언니가 나중에 출가를 했으므로 동생의 사제가 되어야할 상황인데, 영석 스님이 언니보다 구족계를 뒤에 받음으로 해서 절집에서도 사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동생의 사려깊음으로 해서 월남 자리를 승(승), 속(속)모두에서 온전하게 지켜주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영석 스님은 매사에 사려가 깊다. 사려가 깊다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석 스님은 무슨일이든 맡겨만 주면 쉽게 해낸다.

포교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법화와 설법>의 설법 문안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좋은 설법문안을 만들어 낸다. 끊임없이 자기변화를 추구하는 스님의 성실과 근면이 존경과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나진 않지만 알차게 수행하는 스님의 모습이 큰스님 부럽지 않게 느껴진다. ■ 해인사 원담암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엄탑(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원로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